월간
Monthly Journal of Culture City Center Suwon
수원 문화도시센터 저널

문화도시 수원

제 11 호

좌담
문화인재양성 수원은학교
문화도시 수원의 미래를 빚다

머물수록
소통하고 참여하는 축제의 장
2022 북수원 문화공감 : 111CM, 곁의 우리

전문가 칼럼
대화의 주제가 개별화된
서사로 드러날 때

나의도시 수원
마을이 키우는 아이, 모두의 꿈타래
벌터온

문화인재양성 수원은학교 문화도시 수원의 미래를 빚다

자원이 부족한 곳에서 인재는 그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때문에 서로를 살피고 문제에 맞서는 시민을 육성하고 성장을 지원하는
'수원은학교'는 문화도시 수원의 근간이 되는 사업입니다.
수원은학교를 기획하고 이끌어가는 세 사람을 만나
'문화인재양성'에 관한 오늘의 언어를 들어봤습니다.

참석자 백현주(수원은학교 총괄기획자)
박도빈(문화기획자)
조혜미(수원문화재단 문화도시센터 수원은학교 담당자)

수원은학교에서 각각 어떤 역할을 맡고 계시는지요.

백현주 _____ 안녕하세요. 수원은학교에서 연구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그동안 문화예술교육, 커뮤니티 관련 연구와 컨설팅 등 교육기획과 교육연구 등을 해왔습니다. 수원은학교를 통해 사람들을 만나며 우리가 어떻게 함께 성장할 것인가에 생각과 힘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박도빈 _____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 강북구에서 '동네형들'이라는 문화예술단체를 운영했었고요. 지금은 문화기획자 개인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수원은학교에서 시민문화기획자 양성과정을 같이 진행했고요. 이외에도 '기획자의 영토'와 '기획자 캠프' 등을 기획·담당하고 있습니다.

조혜미 _____ 수원문화재단 문화도시센터 시민문화팀 수원은학교 담당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 수원은학교를 담당했고, 어떤 형태로 진행해 나가야 할지 전체적인 설계를 맡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수원은학교는 어떤 사업인가요?

조혜미 _____ 문화기획자 양성과정은 2019년부터 청년전통문화기획자 양성과정과 실버로컬스토리텔링 과정 등으로 진행이 돼왔어요. 그런데 서로 간에 접점이 없고, 단기사업으로 진행되면서 올해부터 시행된 문화도시 조성사업 수원은학교를 통해 하나의 형태로 운영되면 좋겠다는 얘기가 나왔죠. 크게 세대통합과정, 기존 교육 수료자들의 역량강화 사업을 진행했고, 자발적으로 문화활동을 하는 분들을 엮어주는 네트워크 활동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또 지역문화예술과 관련된 공간, 기관의 접점을 연결하고 이러한 문화예술기획자분들을 인터뷰해서 기록으로 남기는 작업도 함께 진행 중이에요. 하반기에는 수원은학교 포럼을 운영했고, 시민문화기획자 후속활동 연계과정 프로그램을 시행했어요. 얼마 전에는 수원시 활동공동체 네트워크 프로그램 '런앤러닝', 예술로소통 심화과정도 마쳤습니다. 수원은학교 파일럿 프로그램인 '프레캠프 & 워크숍'도 개최됐습니다.

수원은학교를 총괄하면서 느낀 소회가 궁금합니다. 많은 분을 만나셨을 텐데요.

백현주 _____ 잘 들여다보니까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장이 펼쳐지면 얼마든지 해낼 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 이미 뭔가를 해왔던 사람들도 상당히 있었어요. 수원이 서울의 위성도시나 베드타운이라고 간단히 말하기에는 도시 자체가 가진 자생성이 매우 크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 경험이 있고 잠재력이 풍부한 인물, 단체들, 주체들을 찾아내는 게 문화도시 수원을 위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지역 활동가로서 타 도시와 다른 문화도시 수원만의 차별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박도빈 _____ 특별한 차별점은 느끼지 못했어요. 지역 활동가는 그곳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뭔가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제일 전문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가장 다양한 상상이나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고 물었을 때 저는 지역에서 이미 그런 과정들을 만들어 왔던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과의 비교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수원은 서울과 가깝긴 하지만 어쨌든 지역성에 대해 고민을 하면서 수원시민으로서의 당사자성을 갖고 맥락 있는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게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지요.

문화와 관련돼 수원은학교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리라고 생각하나요.

백현주 _____ 문화는 필요한 것이라기보다는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고 형성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문화는 교육보다 훨씬 힘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학교는 교육의 방향을 정하지만 아이들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 사회의 지배적인 문화에 자연스럽게 길들고 학습되는 과정이기도 하거든요. 지역문화 발전은 지금의 지배적인 문화가 갖는 문제, 함정, 위험성에 반해서 내 삶이나 주변을 계속 잘 들여다보고 성찰하며 경각심을 갖게 되면서 좀 다른 색을 낼 수 있는 영역이에요. 수원은학교는 문화나 예술의 다양성을 얘기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도빈 _____ 예전의 문화콘텐츠는 공연, 전시회 등 누군가가 잘 만들어 제공하는 것을 보는, 굉장히 수동적인 형태로 소비됐어요. 하지만 지금은 다르죠. 유튜브만 보더라도 개인이 일상의 콘텐츠를 만들면서 하나의 플랫폼이 얼마나 많은 취향과 관심사들을 담아낼 수 있느냐의 가능성을 계속 보여주고 있잖아요. 지역 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명한 공연과 전시가 올 수도 있는데 사실 사람들의 취향이나 관심은 그것보다 훨씬 더 다양하거든요. 이제는 누구나 지역에서도 내가 하고 싶은 모임을 만들고, 사람들을 만나거나 좀 더 나아가면 행사나 축제를 같이 만들 수 있는 흐름으로 가고 있다고 봅니다. 수원은학교는 그런 측면에서 매우 유용합니다.

수원은학교는 문화나 예술의
다양성을 얘기할 수 있는 기반

수원 내에서 문화활동을 하는 분들에게 어떤 부분을 제일 많이 강조하는지요.

박도빈 _____ 저는 기획자로서 본인의 당사자성에 관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사실 우리는 그동안 공공의 영역에서는 내 얘기를 하면 안 될 것 같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은 해서는 안 될 것처럼 사적인 것과 공적인 것을 명확히 구분하면서 들어갔잖아요. 근데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역문화의 다양성이나 개개인들이 주체가 되어 문화를 만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됐어요. 그동안 기획자들이 관공서에서 필요한 것들을 대행해 주거나 시민에게 필요한 서비스, 소외된 분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 주는 기획을 주로 해왔다면 이제는 본인이 기획자이기 이전에 한 명의 시민이자 자신이 가진 당사자성을 가지고 자신에게 필요한 것들, 주변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나오는 문제의식으로부터 기획하는 게 더 풍부한 결과물을 낳을 것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일상에 문화예술이 더해졌을 때의
삶을 생각해봤으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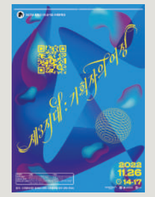
수원은학교 프로젝트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조혜미 _____ 수원이라는 지역을 스스로 얼마나 잘 알고, 이곳에서 살아가는 이웃들과 얼마나 같이 성장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지 않을까 해요. 정량적인 성과보다 수원은학교 사업을 통해 결이 맞는 사람들,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재미난 프로젝트를 조금 더 많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수원은학교는 아카이브, 이슈 토론, 담론화 작업을 통해 시민-예술가-기관이 연결되는 문화예술생태계의 기반을 마련하고 있어요. 그리고 인재양성과정에 관심 있는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문화도시 사업에 결합하며 활동하는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문화에 관심 있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합니다.

박도빈 _____ 성과나 결과는 문화예술 쪽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고민이에요. 우리가 만약 카페를 만들었다면 매출로 결과를 평가할 수 있겠지만 문화예술 분야에서 진행되는 프로젝트들은 많이 참여한다고 해서 반드시 성공한 프로젝트는 아니니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큰 비용이 들어갑니다. 지금 청년들에게 뭔가를 함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주지 않으면 결국은 고립되고 단절된 상태로 10년, 20년을 살아갈 테고 그때 가서는 지금 문화예술 분야에 비용을 쓰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비용이 들어가야 할 거예요. 문화콘텐츠의 사업성을 따지기 이전에 지금 이 도시에서 살아가고 있는 한 명 한 명의 일상에 문화예술이 더해졌을 때의 삶을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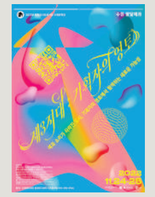
백현주 _____ 문화 쪽에는 해마다 수백억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수원시 전체 예산을 고려하면 얼마 되지 않겠지만 변화를 주제로 한다면 얘기는 완전히 달라지죠. 사실 한 가지도 변화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냥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요. 그럼에도 저는 이러한 사업을 통해서 성과나 효용을 말하기 애매한, 문화예술이 갖는 속성을 이해하는 사람이 조금 많아지고, 그것을 존중할 수 있는 행정 관계자가 다만 몇 명이라도 늘어난다면 그것이 아주 소박할지라도 결정적인 힘을 발휘할 수도 있다고 봐요.

2022 수원은학교 오픈 워크숍
제3지대 : 기획자의 여정



각자 활동영역이 다른 문화기획자, 예술가들이 만나 각자의 주제와 스타일을 경험해보고 문화기획에 대해 새로운 경험을 제공한 '제3지대 : 기획자의 여정'이 11월 26일 푸른지대창작센터 오픈스페이스, 실험목장 AGIT, 경기상상캠퍼스에서 동시에 진행됐다. 첫 번째 주제 '울트라 드로잉, 신경학적 스타일'에서는 대화를 위해, 때로는 더 잘 놀기 위해 서로에게 반응하거나 개입할 수 있는 수단으로 '드로잉'을 활용해 진행했다.
두 번째 주제 '사람책 도서관'에서는 일상의 다양한 영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삶을 매개로 함께 이야기를 만드는 시간으로 공통 주제를 '공간'으로 잡았다. 그냥 존재하는 '공간(space)'이 아닌 관계를 맺는 '장소(place)'로의 의미를 담았다. 세 번째 주제 '육아하는 여성 문화기획자들이 말하는 문화기획, 애들 보내놓고 왔어요'에서는 거창한 문화기획의 담론을 뒤로한 채 삶과 존재를 호명하고 위로하며 서로의 삶을 응원하는 대화의 자리를 만들었다.

2022 수원은학교 프레캠프
제3지대 : 기획자의 영토



'제3지대 : 기획자의 영토'가 11월 24~25일 수원시 행궁동 팔달제과에서 개최됐다. 가상세계의 기획자가 돼 문제를 탐색하고 새로운 기획을 상상한 게임 형식의 워크숍으로 진행된 이번 프로그램은 모든 참여자가 플레이어로 미션을 부여받아 동료들과 함께 역할을 수행하며 기획의 전반적인 과정을 경험했다. 특이한 점은 학습과 배움이 없었다는 것 단, 게임에 접속하기 위해 문화기획에 대한 정제된 호기심을 지참하고 오래된 관성 및 수동적 태도는 버려야 한다는 주의사항만 지키면 됐다. 전체 미션을 완료한 플레이어들은 당사자성(자신의 일상과 주변을 기획자 관점으로 탐색), 상상력(지역의 사람, 공간, 자원 등을 다양하게 연결), 실천력(아이디어를 실행가능한 프로젝트로 기획), 미래의 동료(새로운 파당을 함께 고민하고 서로 응원할 수 있는 관계) 등을 획득할 수 있었다.

수원은학교 포럼 3부
제3지대에 계속 동참하시겠습니까?
기획자의 영토&여정 다시보기

수원은학교의 비전과 방향성을 찾기 위한 '제3지대 : 기획자의 영토&여정'을 리뷰하는 자리가 12월 7일 마련됐다. 이번 포럼에서는 공모지원사업이 돼버린 '기획'의 본질과 역할을 다시 묻고 생각하면서 '기획자의 영토' 참여자들이 느낀 것과 얻은 것을 함께 살펴보고, 기획의 가능성과 과제에 대해 논의한 장이 됐다.

2022 북수원 문화공감: 111CM 곁의, 우리

생활권을 기반으로 다양한 분야의 커뮤니티를 발굴하고 연계한
커뮤니티 축제 '2022 북수원 문화공감 : 111CM, 곁의 우리'가
지난 11월 18일부터 20일까지 북수원 복합문화공간 111CM에서 펼쳐졌다.
문화도시 북수원 생활권역의 거점공간인 111CM과 생활권별 관계망 형성을 통해
시민들이 더 쉽게 소통, 참여, 공유할 수 있게 한 이번 축제는
또 다른 성장의 씨앗을 뿌리며 우리동네가 주는 재미와 감동을 선사했다.

문화예술의 즐거움을 공유하다

'2022 북수원 문화공감 : 111CM 곁의, 우리'는 코로나19로 위축됐던 지역 문화예술계와 시민 커뮤니티를 한데 모음으로써 일상문화의 회복을 위한 즐거운 만남의 장으로 개최됐다. 수원문화재단 문화도시센터 지역문화팀 이진희 팀장은 "북수원 지역의 생활문화 동아리활동에 대한 사전 조사작업을 진행하면서 신생 커뮤니티를 포함해 총 30개 커뮤니티를 발굴했다"며 "이번 행사는 코로나19로 활동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던 커뮤니티들에게 활동의 장을 제공하고, 지역주민들에게는 가까운 곳에서 문화예술 활동을 즐기고 소통하는 시공간의 공유에 의미를 뒀다"고 강조했다. 단절에서 소통으로, 독립에서 연대로, 깐깐함에서 끈끈함으로 소통하는 문화는 우리 곁에 바로 이웃이 있음을 재확인하는 소중한 시간이 됐다.

북수원의 문화정체성을 찾다

아침부터 몰려든 시민들과 커뮤니티 회원들로 111CM 현장은 활기가 넘쳤다. 이날 체험활동을 위해 미리 예약해둔 한 가족은 긴 테이블에 일찌감치 착석하며 한껏 고조된 흥분을 그대로 노출시켰다. 공연을 펼친 동호회들 역시 분주하긴 마찬가지였다. 111CM 광장에 세워둔 각 동호회 배너를 유심히 살펴보며 입장한 방문객들은 그 면면이 다양했다. 아이를 동반한 가족 방문이 가장 많이 눈에 띄었고, 남녀커플로 오거나 혼자 찾아와 전시와 공연을 즐기는 사람들 숫자도 꽤 많았다.

테이블에 모인 아이들과 보호자들은 동호회 회원들의 조언 아래 함께 나무 목걸이 체험, 가죽티코스터 만들기, 마음꽃 만다라 만들기 등을 하며 분주한 모습이다. 수원가톨릭소년소녀합창단, 수원하모니기타앙상블, 에듀플루트오케스트라, 포크댄스 등 수준 높은 공연이 펼쳐진 무대 또한 방문객들의 이목을 끌기에 충분했다.

SNS 관계망을 통해 이날 행사를 알고 일찍부터 찾아왔다는 최재혁 씨 가족은 "예전에는 이렇게 가까운 곳에서 이런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곳이 없었다"며 "서울까지 나가지 않고도 바로 우리 동네에서 다양한 체험활동과 문화를 경험할 수 있어서 기쁘다"며 "앞으로 이런 행사가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고 만족감을 표했다. 북수원에 새로운 문화적 정체성을 찾아준 이번 행사가 문화도시 수원의 또 다른 성장동력으로 견인되길 기대해본다.

인터뷰

수원가톨릭소년소녀합창단

수원가톨릭소년소녀합창단은 2016년 탄생했다. 수원교구의 초등 2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 학생들로 구성된 이 합창단은 뛰어난 실력으로 그간 수원교구에서 인정받아왔다. 그래고리안 찬트부터 미사곡, 현대교회음악까지 다양한 레퍼토리를 갖춘 합창단은 주로 성음악 봉사활동을 해오고 있다. 이정연 단장은 "처음에 섭외가 왔을 때 지도부에서 고민을 좀 했었다"며 "하지만 비종교적인 새로운 활동 이력을 추가해보자는 의미로 참가하게 됐다"고 참가배경을 설명했다. "지도 신부님도, 지휘자 선생님도 특히 이날 공연이 열리는 공간에 굉장히 만족했다"고 밝힌 이 단장은 "비종교적인 노래와 퍼포먼스까지 추가하면서 아주 특별한 경험이 됐다"고 첨언했다.

한편 공연에 참가한 최서윤(안화중 2학년) 학생과 김효우(신봉중학교 2학년) 학생에게도 특별한 시간이긴 마찬가지였다. 늘 성가만 부르다 동요도 부르고 퍼포먼스도 곁들이면서 아주 색다른 경험을 쌓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정연 단장은 "앞으로도 이런 행사가 개최된다면 긍정적으로 출연을 검토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에듀플루트오케스트라

2010년 11월 창단된 에듀플루트오케스트라는 '에듀'라는 이름에서 짐작할 수 있듯 이 음악을 사랑하는 교사들이 모여 만든 단체다. 하태선 단장은 "플루트를 전공한 지휘자의 주도하에 교원을 주축으로 한 오케스트라를 만들었다"며 "소외된 지역의 학교나 복지관, 요양원 등에서 봉사와 나눔을 실천하며 그동안 많은 공연을 해왔다"고 술회했다. 특히 하 단장은 "수원에 근거를 둔 동호회임에도 북수원에서의 공연은 처음"이라고 설렘을 밝혔다.

"처음 수원문화재단에서 출연 섭외를 받았을 때 그간 성실히 연주하고 공연해온 걸 알아준 기관이 있다는 사실에 기뻤어요. 무엇보다 자발적으로 모인 많은 지역주민들 앞에서 공연을 한다는 게 뜻깊었습니다."

김명순 악장의 얘기다. 악기를 연주함으로써 스스로 힐링이 되고 은퇴를 해도 불러주는 곳, 가야 할 곳이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하다는 단원들. 열린 공간 111CM에서의 공연을 통해 자신의 커뮤니티를 더 널리 알리고, 이를 기반으로 일반인들 앞에서 더 많이 연주활동을 하고 싶다는 이들의 바람이 이뤄지길 응원해본다.

COMMUNITY

북수원, 우리 : 커뮤니티들이 다 모였다

북수원 생활권의 중심거점인 복합문화공간 111CM을 중심으로 지역문화 발굴, 커뮤니티 관계망을 형성하고 시민들의 문화연대를 지속·강화하는 북수원 스타일의 커뮤니티 플랫폼이 구축된다. 코로나19 이후 단절되고 침체된 커뮤니티의 발굴과 활동 재개의 기회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무엇보다 개인화·파편화된 현대사회에 취향과 가치중심의 개방적인 새로운 커뮤니티 형성으로 느슨한 문화 커뮤니티 활동이 촉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웃과 함께하는 문화 커뮤니티 활동, 지역사회 내 구성원으로서 서로를 살피고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는 커뮤니티를 소개한다.

음악

온앤오프라인뮤직
양상블 연습을 통해 개인의 목소리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함께 어울려 하모니를 만드는 작업을 연습하고 있다. 연습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콘서트를 기획하고 진행하며 지역사회 공동체의 문화예술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는 커뮤니티다.
홈페이지 www.onandofflinemusic.com

수원가톨릭소년소녀합창단
어린이와 청소년의 목소리로 성음악의 아름다움을 알리기 위해 교구 성음악위원회 산하에서 활동하는 단체다.
유튜브 www.youtube.com/@user-fr5lk9cs8u

수원하모니기타앙상블
10년 넘게 활동하고 있는 클래식 기타동아리다. 클래식, 팝, 가요 등 다양한 곡을 하나의 소리로 만들기 위해 주 1회 모여서 꾸준히 연습하며 활동하고 있다.
카페 http://cafe.daum.net/S.H.G.E **이메일** jayon@naver.com

에듀플루트오케스트라
음악을 사랑하는 경기도 지역 교사들의 음악 단체다. 매년 정기연주회를 개최하고 있고, 찾아가는 음악회 및 봉사연주로 음악을 통한 나눔과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아름답고 따뜻한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커뮤니티다.
카페 https://cafe.daum.net/eduflute
이메일 chacha0424@naver.com

경기라온제나오케스트라
여럿이 함께 모여 아름다운 음악을 나눔으로써 스스로 기쁨을 나누는 아마추어 오케스트라팀이다. 다양한 직업군을 가지고 있는 단원들은 매주 월요일 저녁시간에 모여 연습한다. 초보자와 함께하는 단체로 봉사연주를 통해 음악을 통한 사회공헌도 실천하고 있다.
카페 https://cafe.naver.com/laonzenaorch

포즐사
포즐사는 '포크댄스를 즐기는 사람들'의 줄임말로 포크댄스를 통해 삶의 즐거움과 행복감을 함께 만드는 포크댄스팀이다.
이메일 nyyg99@naver.com

퍼니 우쿨렐레
홀라 자격증에 도전해 60대에 보람을 찾은 동호회로 배움의 즐거움을 어르신들께 돌려드리며 기쁨을 공유하고 있는 단체다.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웃으면서 연주하고 노래 부르며 춤추는 팀이다.
이메일 wldus0244@daum.net

콩나물밴드
정신장애인과 실무자가 연합해 2011년부터 수원 및 전국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밴드팀이다.
이메일 cocodak2486@hanmail.net

기타로 인권을 노래하는 교사모임
초중등 전현직 교사들이 모여서 기타를 배우고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며 친목하는 커뮤니티다. 단순히 기타를 배우는 것이 아닌 철학적인 삶의 의미를 찾고 '인권송'을 노래하며 아름다운 세상을 함께 만드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팀이다.
유튜브 www.youtube.com/watch?v=OytPTDqidew
이메일 lovelovem3@naver.com

화려한 외침
제2의 인생을 즐겁고 유익하게 보내기 위해 인근 아파트 지인들과 결성한 팀이다. 마음은 화려한 청춘이지만 노년기를 설계해야 하는 중년들이 뭉친 커뮤니티다. **이메일** hee990909@daum.net

시각

별빛사진관
사진 찍는 청년들을 위한 커뮤니티다. 전국의 아름다운 별빛과 풍경을 사진으로 담고 있으며, 40여 명의 인원이 계절에 따라 정기적으로 출사를 나가며 독자적인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리터칭 클래스도 운영하며 전시 및 사진에 관련한 다양한 교류활동에 몰두하고 있다.
이메일 sofu234@naver.com

수원 여행 드로잉 NEW
'2022 북수원 문화공감 : 111CM, 곁의 우리'를 계기로 모인 커뮤니티다. 도시를 그림으로 기록하고 있으며 수원 도시 여행자의 마음으로 드로잉하며 우리마을 그림 그리기에 전념하고 있다.

나도 만화가 NEW
캐릭터를 만들어 서사 속 스토리텔링에 담아 보면 어떨까, 하는 궁금증으로 모인 커뮤니티다. 나도 만화가는 미디어 드로잉을 배우며 만나게 된 동호회로 가족과 친구들의 캐릭터를 그리며 주인공으로 만들어주는 기특한 팀이다.

책과함께 사이사이
연습지에 충분히 연습한 후 천연 우드 북마크를 만들며 서로의 독서에 대해 얘기를 나누는 커뮤니티다.
인스타그램 @zio_ziography

냥이냥이
규조토 코르크냥이 받침대를 만들며 서로 얘기를 나누고 공유하는 커뮤니티다.
인스타그램 @dajung2494

함께동행
마음이 담긴 선물에는 크고 작음이 없듯 목걸이를 포함한 다양한 공예품을 만들며 서로 교류하는 커뮤니티다.
인스타그램 @c.someday

마음을 전해요
따듯한 마음과 정성을 좋은 글귀와 엽서에 담아 보내는 동호회다. 평소에 하지 못했던 말을 글로 나누며 마음을 전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인스타그램 @nabicalli_park

티코티코
차와 함께 차분한 마음과 공예활동으로 뭉친 커뮤니티다. 작고 귀엽다는 뜻의 '티코티코'처럼 차 받침대를 만드는 공예활동을 펼치고 있다.
인스타그램 @sweet_hoi

냅냅 아티스트
냅킨과 작은 소품들을 통해 일상예술을 몸소 실천하는 팀이다. '장인은 도구를 가리지 않는다'를 모토로 일상소품인 물티슈로 캔버스에 아트공예를 하고 있다.
인스타그램 @songjinhyi9495

어디든 핀버튼
다양한 글과 글귀, 캐릭터로 핀버튼을 만드는 봉사활동으로 재미있는 체험활동을 지원하는 팀이다.
인스타그램 @sooyeoni5903

꽁냥꽁냥
입체 페이퍼 아트 만들기와 사진이라는 두 가지 관심사에 끌린 이들이 모여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고 액자를 만드는 공동체다.
인스타그램 @chanmicalli

지오그라피
수원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캘리그라피, 서예, 디자인전각 강사들의 창작공간으로 관공서, 학교, 기업체 등의 출강과 행사 기획 전시회, 체험학습과 정규학습을 통해 문화예술 분야의 새로운 장르를 개척하고 있는 커뮤니티다.
인스타그램 @zio_ziography **이메일** zio6598@naver.com

시각

어반스케처스 수원
현장에서 스케치를 즐기는 그림 모임이다. 한 달에 한 번 스케치 모임을 기본으로 하며 수시로 번개 스케치 모임을 권장하고 있다. 이외에도 어반스케치 강좌 및 스킬 공유를 위한 워크숍 개최를 후원하고 있다.
인스타그램 @usksuwon **카페** https://cafe.naver.com/usksuwon
이메일 obliq@naver.com

댄스

아이나홀라
홀라댄스 전문 강사진으로 구성된 댄스팀이다. 실력 있는 강사들로 구성돼 있어 완성도가 높은 공연은 물론 다양한 행사의 공연을 연출하고 진행한다. 사회봉사와 무료공연 등 활동을 통해 여러 지역의 발전과 협업을 위해 무료공연을 진행하고 있다.
인스타그램 @ainahula.world **이메일** sim412@hanmail.net

S클래스홀라
S클래스홀라는 하와이 전통 홀라댄스를 사랑하는 6인으로 구성된 모임이다. 홀라댄스를 배우고 익히는 과정에서 건강한 정신과 신체활동을 추구하며 요양원 및 복지관, 어린이집 등의 사회복지시설에서 홀라댄스 공연 및 재능기부를 통해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는 커뮤니티다. **이메일** nicew95@korea.kr

수원 딴따라댄스홀
2019년 수원을 중심으로 경기도청 스윙댄스 뮤지컬 흥보단을 이끌었으며, 경기도 31개 시군 투어 공연을 하는 청년 커뮤니티다.
홈페이지 www.krsd.co.kr

문학

마음 글과 치유낭독 NEW
사물과 현상을 구체적으로 관찰하는 것은 물론 글을 쓰고 낭독하며 마음속 얘기를 풀어가는 커뮤니티다. 일기나 편지 형식으로 한 장 한 장 글로 옮기며 체험하는 치유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야기 밥
다양한 책 관련 활동을 통해 우리 아이들의 마음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긍정적인 자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커뮤니티다.
블로그 www.blog.naver.com/dldirlqkq1207
이메일 mhk9707@naver.com

환경

동네한바퀴
쓰레기 줍기로 친환경 활동을 통해 다음 세대에 푸르른 지구를 물려주고픈 커뮤니티다. **이메일** noriloves@naver.com

사회관계활동

세븐맘
세븐맘은 같은 아파트 단지의 유·초등생 어머니들이 모인 팀으로 전업맘과 워킹맘들이 만나 교양을 나누고 스포츠 및 문화 예술활동, 환경정화 등을 함께하는 커뮤니티다.
인스타그램 @sanglae.kim **이메일** ihsml@daum.net

시민주도 R&D사업 씨티메이커스

대화의 주제가 개별화된 서사로 드러날 때

시민주도 R&D사업 '씨티메이커스'는 수원문화재단이 추진한 시민모임 지원사업이다.
말 그대로 '도시를 만드는 시민'들이 중심이 돼 지역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찾으며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모든 시민이 쉽게 참여하도록 문턱을 낮추고 과정에 무게를 둔 것은 그 때문이다.

<삐삐롱스타킹> 모임의 실천활동 모습(2020년)

글 —— 최선영

유구리최실장. 창작, 기획, 교육, 연구 등을 해오고 있으며 머뭇거리는 질문을 매개로 대화를 이어가는 것에 관심이 있다. 2022년 대화모임 '씨티메이커스' 전문가 모니터링단으로 참여해왔다.

'움직이고 있음'에 대한 주목

시민주도 R&D사업 '씨티메이커스'는 지역문제에 대한 문화적 해결방법을 고민하는 대화모임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활동이다. 문화도시 수원의 토대가 된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5년 차 사업이다. 수원시 거주자 및 사업자를 가진 대표자를 포함한 3인 이상의 모임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모임 내에서 지역문제에 대한 문화적인 해결방법을 도출해보는 회의진행 후 회의록을 제출하면 수원문화재단이 모임비를 지원한다.

씨티메이커스의 독특함은 또 있다. 바로 공공기관의 예산을 활용해 지원자의 활동을 기획력 중심으로 선정해 지원하는 일반적인 지원사업의 패러다임을 취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오히려 시민역량이나 전문성보다 동기와 활동의지를 바탕으로 최대한 많은 모임을 지원한다. 그렇기에 결과물을 만들거나 발표하는 것보다 대화와 만남을 이어가는 과정 중심의 활동을 지지한다. 그래서 사업의 진입 장벽이 높지 않아 시민들이 기존에 해오던 모임이나 대화를 씨티메이커스와 연결해 참여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모더레이터비 명목으로 활동비를 지급함으로써 시민이 직접 정산을 하지 않아 더욱 유연하게 모임을 운영할 수 있다. 이러한 요소들이 씨티메이커스의 특징이자 장점이라고 볼 수 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움직임'이다. 계속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것, 혹은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 단지 대화하는 모임을 계속한다기보다 그 모임을 매개로 어떤 질문을 계속하는지, 어떤 실천을 시도하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관계와 사건이 이어지고 있는지가 중요하다. 그것은 결국 '문화적인' 순간을 만든다. 문화를 분야나 영역으로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하고 있음'이 '문화적인' 현장으로 연결되는 것이다.

해결로'도' 향하는 움직임

씨티메이커스는 시민들이 모여 대화하거나 모이는 것을 사업적 목적으로 범주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해결'이라는 것은 어떤 현상이나 이슈를 문제로 전제해야 하기에 일단 지역의 어떤 상황을 왜 문제로 보는지에 대한 질문이 필요하다. 이 지점에서 시민들은 기존의 담론이나 최근의 사회적 이슈를 근거로 모임별 질문의 시작점을 찾곤 한다. 또는 대화를 이어가다가 다시 처음 질문의 위치나 범위를 재설정하기도 한다. 그래서 문제설정과 해결이라는 구도는 대화의 시작과 끝이 자연스럽게 혹은 적절하게 연결되는지 살피게 만든다.

해결되지 않는 것, 혹은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끊임없이 발견되더라도 해결이라는 목적지에 잠시라도 다다를 수 있는 것을 도출해간다면 모임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시도는 '문제에 맞서는' 문화도시 수원의 방향성과도 연결된다. 문제에 맞서는 것이 결국 해결하는 것만은 아니지만 해결로'도' 향하는 움직임을 모색해보는 것이다. 그렇게 '하고 있음'이 작은 대화모임들의 지속적인 활동을 채워온 셈이다.

하지만 시민들이 자주 만나 어떤 주제나 이슈에 대해 첨예한 대화를 이어간다고 해서, 심지어 그와 관련한 구체적 실천을 한다고 해서 지역문제가 쉽게 해결되지는 않는다. 불평등하고,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일들은 지역과 일상 안에서 복잡하게 얽혀 매일의 사건이 되기도 한다. 그렇기에 긴 시간의 대화모임이 촘촘하게 정리될수록 한편으로 시민들은 과연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지 의구심이 생기기도 한다.

실제로 필자가 씨티메이커스를 모니터링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의견을 반복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씨티메이커스에 참여하는 사람이 자기 배우자 등 가까운 주변인으로부터 '대체 그게 무슨 일을 하는 거냐', '그걸 하는 목적이 뭐냐' 등의 질문을 자주 받고 있었다. 시민들의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모임 활동이 어떤 의미에서 문화적인지 해석하고 지지하는 인식이 부족하다 보니 무언가를 '하고 있음'이 해결이나 결과를 만나지 못할 때 충분한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사업 밖에서의 '살아가고 있음'

2019년부터 이어져 온 씨티메이커스는 일상적 활동을 지원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동시에 '무엇을 위해' 그 지원을 이어가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도 받고 있다. 단지 '대화하고 있음', 혹은 '모이고 있음'만이 성사된다면 어떤 가치가 발생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 해결을 고민하지만 해결을 만나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은 지역의 문제들, 결국 삶 속에서 씨티메이커스는 이제 어떤 질문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은 씨티메이커스의 보완책 혹은 다음 버전의 사업보다 더욱 넓은 범위의 질문을 필요로 한다. 문화도시 수원이 현실적으로 다양한 사업들로 구성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사업이라는 틀 밖에서의 일상적 실천이나 변화, 혹은 '살아서 움직이고 있음'이 이제는 포착될 필요가 있다. 결국 시민 개개인의 '살아가고 있음'으로 얘기되지 않을까? 지역의 문제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오래된 사회적 문제, 그래서 복잡하고 거대한 문제의 덩어리 앞, 혹은 안에서 각자가 그럼에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개별화된 서사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 서사는 대화나 토론 안에 등장하는 주제이기도 하지만 삶의 질긴 어려움들을 쫓아야만 그리게 되는 가느다란 궤적이기도 하다. 문화적인 순간은 그 궤적들이 도착점을 만나지 않아도 '흐르고 있음' 자체로 구현된다.

그런 의미에서 씨티메이커스의 주변으로 어떤 실천들이 넓은 궤적을 그리게 됐는지 살피는 과정이 필요하다. 어떤 주제의 대화가 많아졌고 모임이 몇 회 늘었는지보다 더욱 중요한 궤적의 흐름이 '문화적' 의미와 연결돼 해석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 과정이 풍부해질 기회가 사업 안팎에서 적극 모색될 때 씨티메이커스가 오랜 시간 그려온 궤적이 수면 위로 조금씩 드러날 것이다.

<가치있게 같이살기> 모임의 실천활동 모습(2021년)

마을이 키우는 아이, 모두의 꿈타래 벌터온 | 마을에 스위치를 켜다

위치 수원시 권선구 세화로141번길 31-26
운영시간 10:00~20:00 (일요일 휴무)

벌터온은 문턱은 낮추고 격은 높인
동행공간이자 사랑방이다.
처음은 놀이터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마을주민 모두의 꿈을 가꿔나가는
마을공동체로서 이름값을 톡톡히 하고 있다.
벌터온의 꿈이 조금씩 이뤄진다고 느끼는 것은
비단 혼자만이 아니다.
"동행공간이라는 말이 참 따뜻해요.
앞으로 함께 계속 동행했으면 좋겠어요."
이심전심, 이구동성이
이를 증명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글 —— 송진영

서둔동 마을공동체 '벌터온(ON)' 대표. 서둔동에서 14년째 거주 중이다. 2017년 가을부터 마을활동이라는 신세계를 경험하며 모든 것을 따뜻하게 품을 수 있는 거대한 마음을 갖는 것이 꿈이 됐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마을에서 이웃들과 함께하며 공간지기로 활동 중이다.

일반시민에서 마을활동시민가로 변신

그랬다. 그곳에서 이웃들을 만나게 되면서 서로가 생각하는 이야기보따리를 풀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을의 바람을 얘기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공통분모를 발견하게 됐다. 바로 놀이터였다. 서둔동 벌터마을의 유일한 놀이터 '벌터어린이공원'의 우범화된 이미지를 쇄신하고, 어린이들은 물론 누구나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쉼터, 소통의 허브로 만들고자 서호초등학교 학부모들로 구성된 '벌터온'이 탄생하게 됐다.

놀이터에서 전래놀이하고, 물놀이하고, 벌터문화마실과 마을축제도 함께 진행하면서 우리는 어느새 일반시민에서 마을문화를 스스로 만들어가는 마을활동시민으로 변화하고 있었다. 누군가 만들어주는 무엇인가를 향유하기만 하는 위치에서 마을 내에서 스스로 만들고 진행하며 이웃과 함께하는 그런 활동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벌터온(ON)의 'ON'에는 많은 뜻이 담겨있다. 따뜻함, 다가옴 그리고 스위치를 켜는 ON. 처음에는 각자의 마음과 놀이터에 스위치를 켜고자 시작했지만 점점 나의 아이뿐만 아니라 마을의 아이가 눈에 들어오게 됐고, 마을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결국 우리는 마을의 스위치를 켜고 싶어졌다. 그러려면 더 많이 배워야 했고 서로의 역량을 키워가야 했다. 마을과 조금 더 소통하기 위해 주민자치회 활동도 하고, 통장과 학교, 꿈터작은도서관 등 마을의 네트워크 활동에 매진한 이유다.

놀이터의 미니 책장, 수원미디어센터의 마을미디어활동, 마을 곳곳의 미니 마을정원, 주민동아리(수공예, 기타, 재봉, 미술 등), 아이들 환경동아리, 시니어와 함께하는 텃밭 그리고 지난해부터 진행한 경기도형 아동돌봄공동체활동까지 일련의 노력은 착착 진행돼갔다. 주민들이 직접 만든 작품을 전시한 '제1회 따(뚯한)숲 전시회'도 작년에 이어 올해 제2회(12. 19~30)를 준비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은 누가 강요하거나 하자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모두 자신의 주머니와 시간을 할애하며 조금 더 행복한 마을생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한 결과물이다.

이심전심이었을까. 이러한 활동들은 예전부터 마을활동을 해오던 어르신들에게까지 전해지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마중물이 됐다. 현재 이곳은 예전에 경로당으로 이용됐던 곳으로 경로당이 새 건물로 이전하면서 벌터문화마실과 벌터마을회는 1차 리모델링을 그리고 경기도형 아동돌봄을 진행하면서 2차 리모델링까지 마친 상태다. 너그러운 일은 또 있다. 이곳은 수십 년 전부터 마을의 한 어르신이 땅을 마을에 기증한 곳. 덕분에 이곳에서 벌터온의 마을활동과 공동육아, 아동돌봄을 할 수 있는 근간이 됐다. 아동돌봄 개소식을 하던 날, 이 건물을 직접 지으셨던 어르신 중 한 분이 오셨었는데 당신들이 지은 건물에 마을 아이들이 안전하게 돌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에 감동의 눈시울을 붉히셨다. 그때의 뭉클함이란 지금도 형언할 수 없는 감동 그 자체다.

낯섦, 익숙함과 신선함의 눈맞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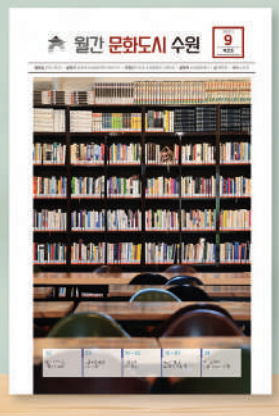
지금의 벌터온을 얘기하자면 처음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당시 필자는 말 그대로 '그냥 시민'이었다. 서둔동으로 시집와서 아이를 출산하고 다시 맞벌이하면서 아이는 시부모님이 돌봐주셨다. 그러다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일을 그만둔 채 육아에만 전념하려고 했었다. 사실 그때까지는 마을에 관심이 없었다. 전투기가 굉음을 내며 하늘을 가를 때마다 이사 생각만 했었고, 실제로 다른 동에 집을 알아보기도 했었다. 심지어 퇴근 후 귀갓길은 수많은 골목과 비슷한 단독주택 때문에 길을 잃기가 부지기수였다.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한 다음 날, 아이를 학교에 등교시키고 혼자 집으로 걸어오면서 무슨 이유 때문이었는지 곧장 집으로 가지 않고 처음 보는 골목으로 발걸음을 내디뎠다. 8년째 살아온 동네였지만 처음 보는 낯선 골목길과 상점들이 새삼 눈에 들어왔다. 마을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한 것은 아마도 그때부터였다. 낡은 골목길 바닥 틈새로 올라온 초록 새싹들과 빨간 단독주택 담장 그리고 대문 위 집집마다 개성으로 꾸며진 화분과 장식물들. 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계속 심호흡이 가빠졌다. 그렇게 며칠간은 마을을 관찰하듯 걸어 다녔다. 그러던 중 카페처럼 보이는 한 공간을 발견하게 됐다. '2017년 달력 받아 가세요'라는 문에 붙여진 쪽지를 보고 홀린 듯이 안으로 들어가게 됐다. 그곳은 당시 벌터문화마을 사업을 진행하던 '벌터문화마실'이라는 곳이었고, 거기서 한문희, 박성희, 김윤영 선생을 만나게 되면서 많은 것들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벌터온 커뮤니티 프로그램 진행 모습

월간 문화도시 수원 정기 구독 이벤트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

제8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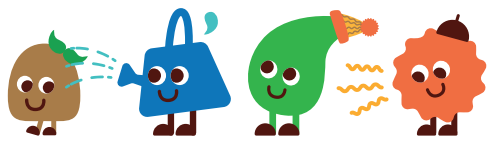
제9호

제10호

정기구독 이벤트
페이지에 연결됩니다.

나눔의 손으로 수원문화예술의 싹을 틔워주세요

문화예술기부 프로젝트 싹ssac은 수원문화재단에서 모금하고 운영하는 기부 프로젝트입니다. 시민 모두가 문화예술을 누릴 수 있는 수원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아름답고 가치 있는 특권 '기부'로 문화예술관광의 싹을 틔우고 꽃을 피워주세요.



독자의견

오세현 · 장안구 정자동 _____ 비록 눈이 오지는 않았지만 성큼 다가온 것 같은 '소설(小雪)'이 지난 어느 11월 달, 수원 옛 연초제조창을 탈바꿈해 시민공간으로 만든 111CM에서 <월간 문화도시 수원> 저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덕분에 마침 진행하고 있는 전시를 볼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원비행장' 문제와 문화예술인들의 협업 및 노력이 담긴 글귀를 볼 수 있었습니다. 19년 동안 살아온 수원의 현안을 되돌아보고, 미래를 멀리 내다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월간 문화도시 수원을 보신 소감, 응원의 메시지를 아래의 메일 주소로 보내주세요.
보내주신 이야기는 월간 문화도시 수원에 소개하고, 추첨을 통해 기프티콘 등 소정의 사례를 드립니다.

보내실 곳 monthlyswcc@gmail.com
내용 독자후기 한마디, 성함, 사시는 곳(OO구 OO동), 휴대폰 번호

*보내주신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제공 및 수집, 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월간 문화도시 수원 발행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필자의 글은 본지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월간 문화도시 수원 _____ **발행일** 2022. 12. 14. **발행인** 김현광 수원문화재단 대표이사 **편집인** 이선옥 수원문화도시센터장 **기획인** 황지아 정책기획팀 주임 **발행처** 수원문화재단 문화도시센터 **제작 및 디자인** 방형식디자인